

◆ 8월 3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 8월 30일(일) 09:00부터 보도

보도자료

2026. 8.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문의 : ☎ 02-6919-3811~2, 대학혁신지원실장 서동석 / 기획혁신팀장 지준오 / 담당 김혜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 'AX시대의 고등교육'을 주제로 대학의 변화와 혁신 방향 논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26년 8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197개 회원대학 중 140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AX 시대의 고등교육>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운영 전반에 가져오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대학이 준비해야 할 과제와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SK하이닉스(주)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 <주제발표>는 “AI agent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김성훈 업스테이지(Upstage) 대표가 AI 산업계 관점에서 발표하였고, “위기의 시대, 대학은 어떻게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 총장석좌교수가 학계 관점에서 발표했다.
-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회원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고등교육 주요현안 논의> 시간에는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 간 AI 공유·협력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을 소개하고, 대학 사회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학의 AI 전환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연구·운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제”라며, “개별 대학의 AI 혁신 경험이 대학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교협은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회원대학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AI 전환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 및 국회 등과 정책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학 간 AI 혁신 경험의 공유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6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개요

2. 2026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사(이기정 회장)

2026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개요

1. 개최 개요

- 일시 : 2026. 8. 28.(금) ~ 8. 29.(토)
- 장소 :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주제 : AX시대의 고등교육
- 참석대상 : 197개 회원대학 총장

2. 프로그램 일정(안)

1일차 (8. 28, 금)

시 간	내 용
13:30 ~ 14:00 (30')	등록
14:00 ~ 14:20 (20')	개회사 신입회원 소개 신임·연임 총장 소개
14:20 ~ 16:20 (120')	주제발표 1 AI agent 시대의 교육 김성훈 업스테이지(Upstage) 대표 2 위기의 시대, 대학은 어떻게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가 조남준 난양공과대학교(NTU) 총장석좌교수
16:20 ~ 16:30 (10')	휴식
16:30 ~ 18:00 (90')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18:00 ~ 19:30 (90')	기념사진 촬영 및 만찬

2일차 (8. 29, 토)

시 간	내 용
09:30 ~ 10:35 (65')	지역별 총장협의회 * 지역별 개최 유무 상이
10:35 ~ 10:50 (15')	사업소개 대학 내 인권 교육 협력 방안 김범조 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기획과장
10:50 ~ 11:30 (40')	고등교육 현안과제 논의 2026년 고등교육 현안과제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11:30 ~ 13:00 (90')	오찬 및 폐회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2026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 회 사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정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2026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의 총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운영과 교육 현안을 살피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신 회원대학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귀한
발표를 맡아 주신 김성훈 업스레이지 대표님과 조남준
남양공과대학교 총장석좌교수님과 본 세미나 개최를 후원해주신
SK하이닉스(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넘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운영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대학 혁신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대학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넘어

AI 시대에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등교육의 AX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AI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도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지, 연구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대학의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나아가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대학에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대학의 역할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AI 전환의 시기에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AI 산업계의 관점에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님께서 ‘AI agent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산업계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방향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남준 난양공과대학교 총장석좌교수님께서 ‘위기의 시대, 대학은 어떻게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의 변화와 혁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 AI 시대에 우리 대학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학의 변화와 혁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는 대학 현장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대학의 AI 전환은 속도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AI를 도입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고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AI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고, 연구자의 창의성과 연구의 가능성을 넓히며, 대학의 책무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대학은 교육의 본질과 사람의 가치를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총장님들께서 나누어 주실 귀중한 경험과 고전이 개별 대학의 고민과 경험을 넘어, 우리 대학 사회의 공동 지혜로 모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 주고, 우리 대학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교협도 회원대학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가 대학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공유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과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모아진 대학 현장의 의견이 향후 고등교육의 AI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AI 시대 대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회원대학 총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각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